



최인석씨

창작과비평사/A5신/300면/8000원

최인석씨(49, 소설가)가 그의 다섯번째 작품집이자 열한번째 책인 《구렁이들의 집》(창작과비평사)을 펴냈다. 지난 1998년 《나를 사랑한 페인》(문학동네)을 출간한 이후 3년 동안의 작품활동 성과를 담은 이 책은 모두 다섯편의 중편소설로 구성됐다.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을 쓰던 무렵,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글과 실제로 내가 쓰는 글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시에 그렇지만 지금 역시 그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번 작품집에 수록된 작품들의 경우, 그 거리가 이전의 작품들보다 조금이나마 줄었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적지 않은 위안입니다.”

미술적 리얼리즘으로 암울한 현실 부각시켜

그의 소설 여정은 1995년에 펴낸 《내 영혼의 우물》(고려원)부터 급박하게 선화하기 시작한다. 환상적 요소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작품집에도 표제작을 비롯해 〈어어 이야기〉〈모든 나무는 얘기를 한다〉 등 그 특유의 ‘미술적 리얼리즘’으로 무장한 작품들이 포함돼 있다. 그의 소설에 나타나는 비현실적인 환상은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한층 또렷하게 부각시킨다.

“우리가 현실이라 믿는 것들은 과연 얼마나 현실일까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이나 자유, 국가나 민족, 선과 악, 문화나 풍습, 이런 것들이 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때로는 공허하고 때로는 사악한 ‘환상’은 아닐까요? 사실은 우리가 현실이라 믿고 있는 이 세계야말로 더없이 환상적



유토피아가 사라진 시대의 백일몽

《구렁이들의 집》 펴낸 최인석씨

최인석씨의 이번 소설집은 지금까지 그가 천착해온 ‘미술적 리얼리즘’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그의 소설에 나타나는 비현실적 환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절망적인 현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다.

그의 작품에 드러난 섬뜩하기조차 한 비관적 세계 인식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역설적인 상황을 담고 있다.

이고 허구적인 세계입니다.”

이번 작품집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

나는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환

멸과 ‘유토피아’를 향한 강렬한 충동이 길항하는 가운데 스토리가 전개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작품들은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양상을 띤다. 중편 〈내 사랑 나의 귀신〉에서 보이는 “잔인한 세상과 망가지기 위해, 죽기 위해 존재하는 인간”에서 보이듯 세상과 인간에 대한 그의 비관적 인식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임철우는 그의 일련의 작품들에서 ‘유토피아’는 사라지고 ‘백일몽’ 같은 환상’들만 존재할 따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몸 담고 사는 세상의 진면목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인간에게 희망과 전망을, 빛나는 미래를 이야기한 사람들이 인류에게 가져온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재난과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희망을 모색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험악하고 위태로운 지점에서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말미의 두 작품에서 기존의 작품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모든 나무는 얘기를 한다〉에서 아침햇살을 받으며 나뭇잎과 열매들 위에서 나누는 주인공들의 정사 장면과 〈봉천동, 그 찬란하던 날〉에서 배신한 아내를 찾아 헤매

던 주인공이 끝내 복수를 포기하고 아내 역시 비참한 현실의 피해자라고 깨닫게 되는 장면은 세상과 인간에게서 한가닥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어렵듯하나 강렬한 그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곧 장편소설 펴낼 계획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는 내 모든 작품에 존재합니다. 나는 절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즐기차게 희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 두 작품이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구사한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지요.”

1980년대 초반 연극을 했던 그가 1986년 소설로 ‘전향’한 것은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당시에는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검열을 받아야만 했는데, 그가 내는 작품은 검열에 걸려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당분간 그는 연극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 다. 소설에만 전력투구할 각오다. 올해 그는 장편을 쓸 계획이다. 오래전에 구상을 마쳐놓은 작품이라 지금 쓰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그의 내부에서 그 무엇이 용솟음치고 있단다. - 최갑수 기자